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이 보장되어 있었건만 그들은 안락한 소시민적 행복을 버리고 유신독재타도를 외치고 편한 직장 대신에 감옥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후 77년부터 내가 지도했던 서클 후배들(유종성, 심상환, 조희연, 반병율, 이증연, 유기홍, 김명인, 김유선 등)은 서울대 학내투쟁의 선두에 서서 반독재 투쟁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에알이로즈를 아느냐?



원혜영_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1학년. 제23대 부천시장, 제14대 국회의원, 풀무원식품 창업, 제7대 국회의원(부천·오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현))

교련반대투쟁이 대학가를 휩쓸던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이 발동되어 학생운동권 1천5백여 명이 연행되고 주요 핵심 1백74명이 제적되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학원을 불순세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불순세력을 학교 밖으로 영구히 추방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와 고려대는 신입생들을 따로 교양학부로 편제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저학년의 피해가 컸다. 다른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개별적으로 3, 4학년을 따라 데모에 참가했던 반면 서울대와 고려대는 교양학부 차원에서 대거 데모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에서는 나를 포함해 법대의 배기운과 문리대 조순용 등이 1학년으로서 제적을 당했다.

제적된 학생들은 군대에 강제입영하게 됐는데 대부분 최전방에 말단 소총수로 배치됐다. 최전방에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고생 좀 하라는 정권의 배려(?) 때문이었다. 나는 철원의 보병6사단 7연대 1대대 3중대 2소대 1분대 4번 소총수로 배치됐다. 당시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을 때라 중졸만 되어도 행정병으로 배치되곤 했는데 위수령 때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은 육군본부에서 직접 배치계획을 짜 전방으로 보냈다.

자대배치를 받아 더블백을 매고 도착한 곳은 철원의 102OP(Observation Post)로 작은 등산 밭의 병커가 소대본부였다. 개구리복(예비군복)을 입고 제대할 때까지 그 병커가 나의 3년 동안의 근무지가 되었다.

나는 위수령이 나고 한 달 쯤 지나서 징집되었다. 마침 청평으로 MI를 갔다가 돌아올 때 신문을 보고서야 위수령이 발령된 줄 알았다. 화가 나서 역 근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뽁뽁 밀었다. 그리곤 학교로 가지 않고 바로 도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뽁뽁 깎은 머리가 계속 신경이 쓰였다. 친구에게 남의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털어 놓으니 가발을 쓰면 어떻겠냐고 했다. 친구는 '사월과 오월'이라는 보컬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는 이수만이 가발을 갖고 있다고 했고 다음날 안중석이 가발을 구해왔다.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근처에서 만난 우리는 근처 이발소로 갔다. 거기서 가발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발소 주인은 가발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며 광화문시민회관의 지하 이발소를 알려 주었다. 지금은 불타버려 나중에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된 시민회관 자리로 가던 도중 보신각 뒤에 '까치 미용실'이라는 큰 간판을 발견하였다. 미장원에서는 가발을 다룰 줄 알겠거니 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다. 온통 여자들뿐이었는데 주인 여자가 남자 가발은 처음이지만 한 번 해보자며 나를 의자에 앉혔다. 가발을 다듬고 있는데 다른 자리에서 탤런트인 듯한 여자가 녹화가 늦었으니 자기 머리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을 했다. 그때 주인 여자의 답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는데 "이 년아!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남자 머리를 해보는데 네 머리 해주게 생겼냐? 시간 없으면 아무한테나 하고 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발을 쓰고 한 달 쯤 도망 다니다 결국 자수하고 군에 입대하였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신체검사를 받는데 3학년인 이호웅 선배와 같이 받게 됐다. 이호웅 선배가 나를 후배라고 자기 앞에 서게 했는데 그때 문에 나의 군번은 12214453이고 이호웅 선배는 바로 뒷 번호인 12214454가 되어 후배인 내가 평생을 고참아닌 고참노릇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이호웅 선배는 "한 번 실수가 평생을 좌우했다"며 우스개를 한다.

3년을 보낸 철원의 병커를 떠나 제대하였을 땐 당시 같이 제적돼 징집됐던 사람들도 대부분 제대해 있었다. 복학생들이 문리대, 지금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 있던 중국집 '진아춘'에 모여 회포를 풀고 있을 때였다. 얼굴이나 보자고 모인 것인데 동대문경찰서에서 쫓아

와 30~40명을 잡아갔다. 밤샘 조사를 받는데 차익순이라는 경감이 "몇 학년이나?" 하여 "1학년"이라 답했다. 사대 역사교육과로 입학해서 교양학부 학생회장을 하다 제적됐기 때문에 아직 1학년이었던 것이다. 차 경감은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에알이로즈를 아느냐?"고 했다. Early Rose를 '에알이로즈'로 발음한 것이다. 봉우리를 막 턱 우려는 장미 하나가 주위를 돌아봤는데 꽃봉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자 이미 꽃이 다 피고져 버렸구나 생각해 급히 서둘러 꽃을 피웠다는 얘기가.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는데 너처럼 혼자 바빠서 흠뻑 먼저 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소문으로는 그이의 이들도 데모하다 제적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위수령 때 제적되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1974년 2학기 때 복학을 했다. 71년만 해도 박정희가 불온학생들을 학원에서 영구추방하겠다고 하였으나 73년에 유화책을 펴면서 복학이 이루어졌다. 복학하고 이듬해 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했다. 골치덩어리인 서울대를 한강 남쪽으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려는 정권의 음모라고 소문이 돌았다.

1975년은 그 전 해인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학생운동권이 씩씩이 당한 후, 소위 운동권의 씨가 마른 때였다. 단순 연합시위 모의를 국가전복을 위한 변란사건으로 조작해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난 때였으므로 운동권 대부분이 잡혀 가거나 잔뜩 위축되어 있을 때였다. 결국 복학생이 데모를 주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선배들의 요구로 복학생 중에는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내게로 책임이 넘어왔다.

1975년 4월 3일은 새로 이전한 관악캠퍼스에 처음으로 최루탄이 터지고 돌맹이가 난무한 날이었다. 이날 아크로폴리스광장에는 2천여 명의 학생이 모였다. 학생들은 '수감 중인 우리의 동료 이현배-유인태-김효순-이강철을 즉각 석방하라' '모든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즉각 사면 복교시켜라' 등 4개항을 결의한 뒤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다. 이날 시위가 빌미가 돼 서울대는 4월 8일부터 장기 휴교에 들어간다. 주동자들은 대부분은 현장에서 잡혀 제적되거나 감옥에 갔다. 나도 보름 정도 도피하다가 잡혀 구속수감되었다. 감옥에 있으니 얼마 뒤 아는 얼굴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왔다. 이때 옛뎌 얼굴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1학년 박원순이었다. 체구가 작고 아주 말라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의연하게 감옥생활을 잘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다. 박원순은 그뒤 복학이 안 돼 결국 단국대 사학과로 다시 입

학한다.

4월 3일에 이어 4일, 7일, 잇따라 벌어진 시위로 서울대는 53명이 제명되고 16명이 무기정학을 당했다. 이중에 나와 연루된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고교 후배인 박인배(물리 72)와 권영기(철학 73)가 그렇다. 복학생이다 보니 학교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가까운 고교 후배들과 함께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당사자들이야 그때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여전히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다.

4.3시위로 재판을 받은 나는 징역1년에 집유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석방되었다. 복학을 하니 선배 그룹의 노선 투쟁이 치열했다. 한 편은 대기론(준비론)이었다. 박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학생운동세력의 씨가 말랐으니 후배들을 교육하며 학생운동의 역량을 키우자는 의견이었다. 5.17 때도 같은 논의가 나온다. 또 한 편은 즉각투쟁론이었다. 지금이야말로 학원이 헛불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투쟁론을 주도했던 게 김근태, 신동수 등이다. 신동수 선배가 나와 박인배, 유진권 등에게 시위를 준비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 한편 경희대 쪽의 신현태, 김봉우, 노주현 등에게 연락을 했다. 경희대는 유인물이 뿌려지는 정도로 끝나고 서울대는 미수에 그쳤는데 이게 바로 1975년 11월 18일 서울대·경희대 연합데모 미수 사건이다. 시위를 앞두고 주변에 동참을 호소하였는데 그중에 배신자가 있어 시위 직전에 발각이 난 것이다.

나는 집에 있다가 구속이 됐다.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중앙정보부에서 잡으러 온 것이다. 이때 하도 놀랐던 터라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은 새벽에 누가 문만 두드려도 흠칫흠칫 놀라곤 한다.

남산으로 잡혀가자마자 화장실을 갔는데 별다른 감시가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번기에 쭈그리고 앉아 수첩을 한 장씩 뜯어 씹어 먹는데 긴장을 하니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침이 나오지 않아 목이 메었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걸려들 염려를 없앴다는 생각에서 마음만은 터없이 편했다. 이 사건으로 나는 1년형을 살았다.

석방되어서는 감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 대학별, 지역별 연대들을 만들자는 논의를 해 민주청년인권협의회(초대회장 정문화)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후에 전국 학생운동 출

신들의 연대라고 할 수 있었던 민청협이 토대가 된다. 민청인협은 초기에는 정치보다는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느슨한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그래서 회장도 두지 않았다. 지역별, 대학별 간사만을 두었는데 나는 총괄총무를 했다.

1978년 말에는 도서출판 '폴무'를 만들어 신경림 선생의 지도로 책을 세 권 냈다. 출판사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해찬, 임승남 등이 하던 돌베개 사무실에 책상을 갖다 놓고 마가렛생거의 전기와 미국 평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수기집 등을 냈다. 10.26 이후 모두들 변화를 갈망하던 때였지만 신군부는 체육관선거를 통해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음모를 진행 중이었다. 그 가운데 11월 24일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이 터졌고 후배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던 나는 이 일로 수배를 당하게 되었다.

어느날 집에 있는데 부평경찰서에서 경찰이 찾아왔다. 부평서는 당시 나와 동생인 원혜경, 그리고 중앙일보에 있던 유근일 선생 등을 담당하며 일상적으로 감시를 하던 곳이라 아침 일찍 찾아왔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합수부에 연락을 해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 들으니 “원혜영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보통일이 아니다 싶어 세면도구를 챙겨 나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의 부엌은 몽당부엌이라 마당 높이보다 움푹 들어가 있었는데 안 쪽에 산으로 통하는 쪽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문으로 도망가 산 너머 아는 집에 가서 점퍼를 빌려 입고 그길로 서울로 도망쳤다. 전두환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던 81년 초가 되어서야 수배가 해제되었다.

70년대의 학생운동은 그 이후 시대에 비해 소박하고 낭만적이었다. 조직운동과 대중운동이 차단된 속에 자연발생적인 시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무런 연계도 없이 일어났다. 유신 치하의 엄혹한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투쟁한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적이고 개별적이고 분산된 운동을 벌였던 때이다. 체계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의식을 갖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결단과 용기에 근거하여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졌던 게 긴조 세대이다. 혹독한 군대 생활을 겪고 더욱 외롭고 고통스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렇다 할 연대조직이 없는 속에 함께 모여 위로할 동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세대다. 지금은 다들 사회의 중견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없는 내가 70년대 학생운동 세력의 대표성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 같이 고생하고 투쟁한 선배와 후배 동료들에게
 빛을 진 마음도 갖고 있다. 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여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
 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이들에게 보상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내 삶을 바꾼 농은 감옥 안의 햇살



박계동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72학번, 제14대 국회의원(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노태우비자금사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국민상 수상,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을)원

1975년 5월 13일, 나는 혜화동에 살면서 보성고등학교와 고대
 를 함께 다녔던 불문과 친구 김진환의 집에서 온 종일 골방을 가득히 담배 연기로 채우며 세
 상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렵곤했지만 아마 대학 생활에 대해, 미래의 희망에 대해,
 미팅 경험과 이상적인 배우자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생각
 해보면 정작 당시에 격랑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던 고민은 감추어둔 채, 부질없는 이야기
 로만 곁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헤어진 것은 오후 너덧 시 될 것이다. 혜화동 로타리를 지나
 는데 한 귀퉁이의 조그마한 전파사앞에 10여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나운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먼 발치에서도 큰 소리로 들려왔다.

“앞으로 일체의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이 금지됩니다.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
 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위반 내용을 방송에 보도해서도 안됩니다. 향후 5명 이상이 모
 이는 집회는 반드시 당국의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
 고...”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움을 넘어 질려 있었다. 유신 헌법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금지한 것